트윈세대의 의복 치수적합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tting Size of Tween Generation' Garments

원광대학교 패션디자인 산업전공
부교수 이 진 희
시간강사 전 명 숙

Dept. of Fashion Design & Apparel Industry, Wonkwang Univ.
Associate Professor : Jin-Hee Lee
Lecturer : Myong-Sug Jeon

목 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및 고찰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he garment sizes by junior brand manufactures reflect Tween Generation's (ages from 5th grade to 9th grade) actual body sizes. They have diverse clothing preferences in styles and fitting levels as well as diverse body sizes and shap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20 students (the 5th and 6th grades in elementary schools, the 1st, 2nd and 3rd grades in middle schools) who lived in Jeonju. A questionnaire was us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means, t-test and χ^2.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n the selection of garment size, both the girl and boy students most preferred selecting garments after trying them on by themselves. Boy students tended to select garment size according to their mothers' advice. On the other h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showed a tendency to select garment size with their mothers. In fitting sizes, middle school girls wanted the size to fit tightly rather than loosely on their bodies much more than elementary school girls. Junior brand manufacturers produced sizes that well reflected actual body size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girls. Specifically, the pants best covered their body sizes.

주제어(Key Words): 트윈세대(tween generation), 주니어브랜드(junior brand), 치수적합성(fitting size)

Corresponding Author. Myong-Sug Jeon, Dept. of Fashion Design & Apparel Industry, Wonkwang Univ. 344-2 Shinyong-dong. Iksan Chonbuk 570-749, South Korea Tel: 82-63-850-6647 Fax: 82-63-850-7301 E-mail: jsmyong@hanmail.net

Ⅰ. 서 론

청소년기에 속하는 트윈세대(Tween Generation)는 어린이와 틴에이저의 중간 세대로써 서양에서는 8~14세를 가리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과 정서적 차이를 감안할 때 11~15세 정도가 포함되고 있다(김은경, 최혜선, 강여선 , 2002).

섬유산업연합회(2004)에 따르면 트윈세대들은 의류구매에 있어서 경기불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세대이며, 왕성한 구매력을 가진 미래의 소비자라고 하였다. 또한 이 세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 마켓(kids market)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덜트 마켓(adult market) 사이에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신체의 사이즈만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 트윈세대 특유의 신체적 발달이나 정서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영캐주얼업체나 유아동복업체에서 의복을 구입하기 때문에 트윈세대의 신체치수와 이들이 추구하는 디자인감각이 적절하지 않아 의복구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세대이다.

트윈세대층은 신체적인 급성장 시기로 키의 경우에 있어서 남자는 만10~15세와 여자는 만10~13세 때 가장 많이 성장하는 시기(Size Korea, 2004)인데 이 연령에 모두 속하는 세대이다. 또한 체격 면에서도 만11~12세의 경우 동일 학년 내에서 키는 20cm가량, 몸무게는 15~20kg가량의 신체 편차를 보여(김은경 외 2인. 2002) 체격의 개인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유아동복(4~14세)업체에서도 만11~13세를 대상으로 하는 의복을 많이 제작하지 않고 있다. 이 시기의 여학생은 빠른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에 이미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나 아직은 성호르몬 분비가 충분하지 못해 체격은 크지만 신체라인은 중고생과 큰 차이가 있어(한국섬유신문, 1999), 시중에 나와 있는 영 캐주얼복을 착용할 경우 불편해하고 있다(김은경 외 2인. 2002)고 하였다. 또한 중학교 1~2학년의 경우 대부분 영 캐주얼업체에서 의복을 구매하고 있고 만족도도 높은 편이지만 중학생 중에서도 체격이 작은 학생들은 유아동복업체나 영 캐주얼업체에서도 신체에 맞는 옷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시기의 트윈세대들은 신체에 맞는 사이즈와 이들이 원하는 디자인과 색상, 패턴의 욕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가 드물고(김은경 외 2인. 2002),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의복을 선택할 때 자녀 나이보다 한 단계 높은 호수의 옷을 구입하며 또래보다 키나 몸집이 크다면 두 단계 높여 구입한다(한국섬유신문, 1999)고 하였다. 이러한 트윈세대에 속하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경우 의복선택의 폭은 좁으며 이 연령의 아동들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조진숙, 1998).

이와 같이 트윈세대의 빠르고 다양한 신체성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균형 잡힌 성인들의 체형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복에 치수의 크기만을 크게 하여 의복을 제작하고 있어 구체적인 구매요건이 실제와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의복 라벨에 표기된 치수는 이를 착용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의 신체치수를 의미하지만 같은 치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도 형태적 인자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체에 맞는 의복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각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수내역은 업체별로 시행착오를 거쳐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따라 서로 다른 치수 범위와 조합을 사용하고 공통성이 결여되어 있어 소비자가 자신의 몸에 맞는 치수를 선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최혜선 외 1인. 1995). 뿐만 아니라 특정 마켓 소비자의 인체특성을 연구하여 마켓별 표준치수의 설정과 부위별 그레이딩 편차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성복의 치수체계는 일반적으로 가슴둘레가 커지면 엉덩이 둘레와 신장이 함께 커지도록 되어 있어서(김은경 외 2인. 2002) 트윈세대의 체형에게 적용하기는 부적합하다.

또한 10대들의 특징인 새로운 패션에 대한 관심과 빠른 신체적 성장률로 인해 의복의 구입이 자주 행해지는 트윈세대를 성인복이나 유아동복의 브랜드에서 수용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트윈세대의 체형에 따른 다양한 치수의 분류 및 적합성이 높은 의복제작을 위해 전문브랜드의 치수관련 연구를 통한 기초정보 제공은 의미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성장이 왕성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의 트윈세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의복 구입 시의 치수적합성에 대해 초등 · 중학생별, 성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다.
2. 의복 구입 시 의복치수와 신체치수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통해 트윈세대의 의복 구입 시 치수선정 및 맞음새 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업체조사를 통해 신체치수와 업체치수의 차이를 파악하여 적합성이 높은 트윈세대를 위한 전문브랜드 치수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소비자조사

본연구의 본 조사에 앞서 2005년 6월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5-6학년(만11~12세)과 중학교 1-3학년(만13~15세) 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년에 30명씩 150명에게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불확실한 자료를 제외한

〈표 1〉 조사대상자의 분포

성별	빈도(명)	백분율(%)	학령	연령	빈도(명)	백분율(%)
남	273	56.9	초등학생	11	90	18.8
				12	97	20.2
			중학생	13	105	21.9
여	207	43.1		14	100	20.8
				15	88	18.3
전체	480	100.0	전체		480	100.0

14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의복적합성에 관한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크론바흐 값 : α 0.62) 후 설문지 문항을 수정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전북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 3 곳의 초등학교 5~6학년(만11~12세)과 중학교1~3학년(만13~15세)을 대상으로 하여 520부의 설문 조사를 하였다. 그중 불확실한 자료를 제외한 총 48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분포는 다음과 같다〈표 1〉.

조사기간은 2005년 10월에서 2005년 12월까지로 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20문항으로 맞음새 결정에 관련된 문항 6항목과 치수적합성 관련문항 10문항, 호칭 관련문항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선호도와 관련된 문항에서 척도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480부의 설문지를 SPSS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으며 통계기법으로는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및 백분율과 평균, χ^2, t검증이 사용되었다.

2. 업체 조사

트윈세대 신체치수와 유아동복에 포함되어 있는 주니어복(현재 업체에서의 업종분류에서 트윈세대를 위한 옷을 주니어복으로 사용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 명칭을 사용함)에 표기되어 있는 치수가 급성장하는 트윈세대의 신체정보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업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5년 10월~2005년 12월이었으며 겨울용 의복 아이템 2가지(셔츠, 바지)에 대해 의복 표기치수를 조사하였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한국 패션브랜드 사전을 통해서 매출순위 1위에서 5위까지의 6곳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판매대상을 본 연구의 연령층(만 11세-15세)으로 하는 아동복업체와 아동복과 주니어복을 함께 판매하는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표 2〉.

A업체는 중저가의 8~16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동복과 주니어복을 함께 판매하는 업체이며, B업체는 7~16세를, C업체는 3~14세를 대상으로 하는 영캐주얼복과 주니어복을 함께 판매하는 업체이다.

〈표 2〉 조사대상 업체

항목 / 업체	매출 순위	2004년 연간 매출액(억원)	타겟	런칭 시기
A 업체	1	2100	8~16세	2001
B 업체	3	200	7~16세	2000
C 업체	2	340	3~14세	2002
D 업체	3	200	11~13세	2002
E 업체	4	120	11~13세	1974
F 업체	5	100	9~15세	2002

* 참고자료 : 한국패션브랜드 사전(2005/2006), 각 업체의 인터넷홈페이지, 업체매장

D업체는 11~13세를 대상으로 하는 중저가업체이며, E업체는 11~13세를 대상으로 하는 중고가의 유아동복과 주니어복을 함께 판매하는 업체이며, F업체도 중저가의 9~1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동복과 주니어복을 함께 판매하는 업체이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의복 구입 시 치수적합성

트윈세대의 성별에 따른 의복 구입 시 치수선정과 맞음새 결정은〈표 3〉과 같다. 치수 선정에 있어서 남학생은 '착용 후 본인 선택', '착용 후 어머니 생각대로', '어머니 생각대로' 순으로 나타나 의복 구입 시 직접 착용 후 맞는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에는 '착용 후 본인 선택', '착용 후 어머니 생각대로', '착용 후 판매원 조언대로' 순으로 나타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생각이 치수 선정에 관여하는 비율을 볼 때, 남학생은 29.6%, 여학생은 26.1%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간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아동복에서도 비슷한 연구결과(이경남, 함옥상, 2000)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의복브랜드에서 설정해 놓은 치수체계가 다양하지 않을 뿐 더러, 청소년기 전기에 속하는 트윈세대는 남녀 모두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성인체형의 형태를 취해가고 있다. 또한 둘레의 크기와 길이의 크기가 균형 있게 성장한 체형이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성숙의 차이에 따라 체형구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이정순 외 2인, 1997) 본인이 직접 착용 후 치수를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맞음새 결정에 있어서 남학생은 '본인과 어머니가 절충하여' 맞음새를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본인', '어머니' 순이며 여학생은 '본인과 어머니가 절충하여' 맞음

〈표 3〉 성별에 따른 의복 구입 시 치수선정 및 맞음새 결정자

문항 \ 성별			남학생		여학생		전체		χ^2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치수선정	어머니생각 의복 치수대로		31 15	11.5 5.6	8 10	3.9 4.8	39 25	8.2 5.2	10.62*
	착용후	본인생각 어머니생각 판매원조언	164 49 11	60.7 18.1 4.1	130 46 13	62.8 22.2 6.3	294 95 24	61.6 19.9 5.0	
	전체		270	100.0	207	100.0	477	100.0	
맞음새결정	본인 본인과 어머니절충 어머니 다른 가족 친구 판매원		98 107 38 10 6 7	36.8 40.2 14.3 3.8 2.3 2.6	57 126 6 4 8 4	27.8 61.5 2.9 2.0 3.9 2.0	155 233 44 14 14 11	32.9 49.5 9.3 3.0 3.0 2.3	31.98***
	전체		266	100.0	205	100.0	471	100.0	

* $p<0.05$, ** $p<0.01$, *** $p<0.001$

〈표 4〉 초등 · 중학생에 따른 의복 구입 시 치수선정 및 맞음새 결정자

문항 \ 성별			초등학생(11~12세)		중학생(13~15)		전체		χ^2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치수선정	어머니생각 의복 치수대로		24 8	13.0 4.3	15 17	5.2 5.9	39 25	8.2 5.3	26.62***
	착용후	본인생각 어머니생각 판매원조언	92 52 8	50.0 28.3 4.3	200 42 16	69.0 14.5 5.5	292 94 24	61.6 19.8 5.1	
	전체		184	100.0	290	100.0	474	100.0	
맞음새결정	본인 본인과 어머니절충 어머니 다른 가족 친구 판매원		55 93 20 4 1 7	30.6 51.7 11.1 2.2 0.6 3.9	99 139 24 10 13 4	34.3 48.1 8.3 3.5 4.5 1.4	154 232 44 14 14 11	32.8 49.5 9.4 3.0 3.0 2.3	10.99
	전체		180	100.0	289	100.0	469	100.0	

* $p<0.05$, ** $p<0.01$, *** $p<0.001$

새를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본인', '친구' 순으로 나타나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친구들이 맞음새 결정에 대한 비율이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치수 선정에 있어서 초등학생은 의복 구입 시 '착용 후 본인 선택'으로 치수를 선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착용 후 어머니생각', '어머니생각'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중학생도 '착용 후 본인 선택'으로 치수를 선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착용 후 어머니생각', '의복 치수대로' 순으로 선정한다고 하였다. 이는 역시 초등학생은 어머니의 판단에 도움을 받는 경향이 중학생보다 높으며 중학생은 브랜드의 치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이용 능력이 초등학생보다 약간 높은 것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맞음새 결정에 있어서 초등학생인 경우 '본인과 어머니 절충'의 경우가 많게 나타나 어머니와 함께 맞음새를 결정하고, 다음은 '본인', '어머니'가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도 '본인과 어머니 절충'의 경우가 많아 어머니와 함께 맞음새를 결정하고, 다음은 '본인', 그 다음은 '어머니' 순으로 나타나 초 · 중등학생에 따른 의복 구입 시 맞음새 결정은 초등학생과 중학생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트윈세대 신체부위 기준에 따른 의복 구성 항목의 맞음새 정도는 〈표 5〉와 같다. 남학생은 하의의 경우 엉덩이둘레를 기준으로 의복을 구입 할 경우 허리둘레는 '잘 맞는다', '크다', '작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도 '잘 맞는다', '크다', '작다' 순으로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크다는 비율을 볼 때, 남학생은 23.4%, 여학생은 38.7%로 나타나

〈표 5〉성별에 따른 신체부위 기준별 의복 구성 항목 맞음새

문항	성별	남학생		여학생		전체		χ^2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엉덩이둘레기준 허리둘레	매우크다	9	3.4	8	3.9	17	3.6	6.52**
	크다	53	20.0	71	34.8	124	26.4	
	잘 맞는다	184	69.4	116	56.9	300	64.0	
	작다	14	5.3	9	4.4	23	4.9	
	매우작다	5	1.9	0	0.0	5	1.1	
	전체	265	100.0	204	100.0	469	100.0	
가슴둘레 기준 소매길이	매우길다	7	2.6	2	1.0	9	1.9	6.05
	길다	39	14.7	24	11.8	63	13.4	
	잘 맞는다	197	74.3	162	79.4	359	76.5	
	짧다	18	6.8	16	7.8	34	7.2	
	매우짧다	4	1.5	0	0.0	4	0.9	
	전체	265	100.0	204	100.0	469	100.0	
허리둘레 기준 바지길이	매우길다	10	3.8	9	4.4	19	4.1	5.53
	길다	51	19.6	58	28.3	109	23.4	
	잘 맞는다	178	68.5	121	59.0	299	64.3	
	짧다	19	7.3	16	7.8	35	7.5	
	매우짧다	2	0.8	1	0.5	3	0.6	
	전체	260	100.0	205	100.0	465	100.0	

** $p<0.01$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학생의 경우 둘레 항목 중 특히 엉덩이둘레의 평균치가 가장 많이 증가하여(김은경 외 2인. 2002) 엉덩이둘레를 기준으로 의복을 구입할 경우 허리둘레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한 여학생의 엉덩이가 상대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크기 때문에 의복 치수의 허리둘레가 '크다'에 많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의의 경우 가슴둘레 기준의 소매길이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잘 맞는다', '길다', '짧다' 순으로 나타났다. 하의의 경우에는 허리둘레 기준의 바지 길이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잘 맞는다', '길다', '짧다'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여학생의 초등 · 중학생에 따른 의복 구입 시 치수여유 선호도

요인	구분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재킷	초등학생(11~12세)	83	2.5	0.8	-4.77***
	중학생(13~15세)	120	3.1	0.9	
	계	203	2.9	0.9	
스커트	초등학생(11~12세)	82	3.1	0.9	-1.69
	중학생(13~15세)	119	3.3	0.7	
	계	201	3.2	0.8	
바지	초등학생(11~12세)	83	2.9	0.9	-2.13*
	중학생(13~15세)	121	3.1	0.9	
	계	204	3.0	0.9	
티셔츠	초등학생(11~12세)	83	3.1	0.9	-3.30***
	중학생(13~15세)	119	3.5	0.8	
	계	202	3.3	0.9	

* $p<0.05$, ** $p<0.01$, *** $p<0.001$

여학생의 초등 · 중학생에 따른 치수 크기 여유 선호도는 〈표 6〉과 같다. 재킷의 경우 초등학생은(2.5) 비교적 '넉넉한 것'에 가깝게 선호하지만 중학생은(3.1) '보통' 크기의 사이즈를 선호하여 초등 · 중학생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스커트의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여학생은 '보통' 정도의 사이즈를 선호하였으며 바지의 경우 초등학생은(2.9)과 중학생(3.1)은 모두 '보통' 크기 정도의 치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셔츠에서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경우(3.1) '보통'의 크기를 선호하였으며 중학교 여학생은(3.5) 비교적 '맞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초등 · 중학생에 따른 치수에 대한 여유 선호도 정도는 〈표 7〉과 같다. 초등학교 남학생과 중학교 남학생의 재킷과 바지의 치수 여유에 대한 선호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비교적 '넉넉한 것'에 가까운 것(2.5, 2.7)을 선호하였으나 티셔츠에서는 남자 초등학생과 남자 중학생간의 약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추희경(1994)의 연구에 따르면 신체 부위별 필요 여유분이 각기 다르다고 하였는데 재킷과 바지의 크기와 티셔츠의 크기 선호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여학생이나 남학생 모두 넉넉한 의복을 선호하고 중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은 보통 크기의 사이즈를 선호하였다.

의복 적합성에 대한 판정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발전된 선호도에 의해 신체와 의복의 관계에 대한 운동 감각 피드백

〈표 7〉 남학생의 초등 · 중학생에 따른 의복 구입 시 치수여유 선호도

요인	구분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재킷	초등학생(11~12세)	93	2.5	0.7	−1.37
	중학생(13~15세)	164	2.7	0.8	
	계	257	2.6	0.8	
바지	초등학생(11~12세)	94	2.7	0.6	−0.45
	중학생(13~15세)	165	2.7	0.8	
	계	259	2.7	0.7	
티셔츠	초등학생(11~12세)	94	2.6	0.7	−3.07**
	중학생(13~15세)	165	3.0	0.8	
	계	259	2.8	0.8	

** $p<0.01$

에 근거(Watkins, 1995)하며, 의복의 여유분 역시 의복적합성에 대한 착용자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의복의 적절한 맞음새는 개개인의 미적, 기능적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Ashdown, 1995)이라 하였다.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의복의 적절한 맞음새는 서로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치수 크기 여유정도는 역시 다른 크기의 사이즈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체성장이 남학생은 13세경에 급격히 성장하며, 14세쯤 성장의 정점에 달하고 여학생의 경우는 11세에 성장이 급등하고, 12세에는 신장과 체중의 증가속도가 정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성장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신체에 적절한 사이즈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 신체치수와 업체치수와의 비교

신체치수와 업체치수와의 비교를 위해 신체치수는 트윈세대의 한국 평균 신체치수 자료인 사이즈 코리아(Size Korea, 2004)의 신체계측치를 사용하였다. 업체치수는 의복아이템 중 셔츠와 바지의 2개 아이템을 성별로 나누어 조사된 의복 표기치수를 자료로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표 8〉은 남학생 셔츠의 주니어업체와 트윈세대 신체치수와의 비교를 위해 가슴둘레와 키를 비교 분석하였다.

셔츠의 경우 남학생(11세-15세)에 있어서, 2004년도 Size Korea 자료에 의하면 가슴둘레는 75~87.1cm의 범위에 있으며 키는 144.9~169.2cm의 범위에 있었다.

A업체의 경우 가슴둘레가 70~85cm범위에 있으며, 키는 130~160cm 범위로 생산하는 4개 치수 중 3개 치수(140호, 150호, 160호)가 트윈세대의 신체치수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14세와 15세의 경우는 신체치수가 잘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업체의 경우는 5개 생산 치수 중 3개의 치수(140호, 150호, 160호)가 트윈세대의 한국 평균 신체치수를 반영하고 있다. C업체는 키는 다소 일치하나 가슴둘레의 경우는 14세의 84.3cm와 15세의 87.1cm에 못 미치는 80cm 까지를 치수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B, C업체 모두 최근 트윈세대의 빠른 성장에 따른 신체계측치가 치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업체의 경우에서는 6개의 생산치수 중 3개 치수(150호, 160호, 170호)가 트윈세대의 한국 평균 신체치수와 일치하나 가슴둘레의 경우 15세의 87.1cm보다 약간 작은 85cm까지를 치수에 반영하고 있다.

E업체도 6개의 생산치수 중 4개 치수(11호,13호, 15호, 17호)가 일치하고 있으나 11호의 경우에서는 키의 치수는 적합하나 가슴둘레의 경우 트윈세대 11세의 75cm에 못 미치는 70cm로 나타나 가슴둘레와 키의 조합에 있어서 가슴둘레가 다른 업체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F업체의 경우는 6개의 생산치수 중 4개 치수(11호, 13호, 15호, 17호)가 트윈세대의 한국 평균 신체치수를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유아동복과 주니어복을 함께 판매하는 대부분 업체의 경우 7~17세를 대상으로 하여 넓은 연령대를 반영하고 있어 가슴둘레와 키의 조합이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남학생 셔츠의 경우 트윈세대의 가슴둘레와 업체치수의

〈표 8〉 남학생의 셔츠 업체 표기치수와 신체치수*와의 비교

단위 : cm

치수분류 / 연령	신체치수	업체 표기치수											
		A		B		C		D		E		F	
나이 (세)	가슴둘레 /키	호칭(세)	치수 (가슴둘레/키)	호칭(세)	치수 (가슴둘레/키)	호칭(세)	치수 (가슴둘레/키)	호칭(세)	치수 (가슴둘레/키)	호칭(세)	치수 (가슴둘레/키)	호칭(세)	치수 (가슴둘레/키)
11	75.0/144.9	130(8~9)	70/130	120(7~8)	60/(114-124)	7(8)	60/120	120(7~8)	60/120	7(7~8)	58/120	7(7~8)	62.4/122
12	77.0/150.7	140(10~11)	75/140	130(8~10)	65/(124-136)	9(10)	65/130	130(8~10)	65/130	9(9~10)	61/130	9(9~10)	68.7/133.3
13	80.7/158.2	150(12~13)	80/150	140(10~12)	70/(136-145)	11(12)	70/145	140(10~12)	70/135	11(11~12)	70/145	11(11~12)	75/144.9
14	84.3/164.7	160(14~16)	85/160	150(12~14)	75/(145-158)	13(13)	75/155	150(12~14)	75/150	13(13~14)	76/155	13(13~14)	80.7/158.2
15	87.1/169.2			160(14~16)	80/(158-168)	15(14)	80/165	160(14~16)	80/160	15(15~16)	82/165	15(15~16)	87.1/169.2
								170(17~18)	85/170	17(16~17)	86/170	17(16~17	90/172.5

* 신체치수 : 2004년 Size Korea 자료

〈표 9〉 여학생의 셔츠 업체 표기치수와 신체치수*와의 비교

단위 : cm

치수분류 / 연령	신체치수	업체 표기치수											
		A		B		C		D		E		F	
나이 (세)	가슴둘레 /키	호칭(세)	치수 (가슴둘레/키)	호칭(세)	치수 (가슴둘레/키)	호칭(세)	치수 (가슴둘레/키)	호칭(세)	치수 (가슴둘레/키)	호칭(세)	치수 (가슴둘레/키)	호칭(세)	치수 (가슴둘레/키)
11	71.2/145.0	130(8~9)	70/130	120(7~8) 130(8~10)	60/(114-124)	7(8)	60/120	120(7~8) 130(8~10)	60/120 65/130	7(7~8) 9(9~10)	58/120 61/130	7(7~8) 9(9~10)	59.9/120.4 65.7/132
12	75.1/150.9	140(10~11)	75/140	140(10~12)	65/(124-136)	9(10)	65/130	140(10~12)	70/135	11(11~12)	70/145	11(11~12)	71.2/145
13	77.7/158.2	150(12~13)	80/150	150(12~14)	70/(136-145)	11(12)	70/145	150(12~14)	75/150	13(13~14)	76/155	13(13~14)	77.7/155
14	79.9/158.7	160(14~16)	85/160	160(14~16)	75/(145-158)	13(13)	75/155	160(14~16)	80/160	15(15~16)	82/165	15(15~16)	80.6/159
15	80.7/159.1				80/(158-168)	15(14)	80/165	170(17~18)	85/170	17(16~17)	86/170	17(16~17)	81.7/160

* 신체치수 : 2004년 Size Korea 자료

가슴둘레가 적당하면 키의 치수가 맞지 않고 남학생의 키 치수와 업체의 키치수가 적당하면 가슴둘레가 크거나 작아 서로 가슴둘레와 키의 성장률이 잘 반영되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여학생 셔츠의 경우 주니어업체와 트윈세대 신체치수와의 비교를 위해 신체치수의 가슴둘레와 키를 비교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트윈세대 여학생(11~15세)의 한국 평균 신체치수는 가슴둘레는 71.2~80.7cm의 범위에 있으며 키는 145.0~159.1cm의 범위에 있었다.

A업체의 경우, 가슴둘레가 70~85cm범위에 있으며 키는 130~160cm 범위로 생산하는 4개 치수 중 3개(140호, 150호, 160호)치수가 트윈세대의 신체치수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유아동복과 주니어복을 하께 판매하는 업체로 8~16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넓은 연령대를 반영하고 있어 가슴둘레와 키의 조합이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

B업체의 경우, 생산 치수 중 3개의 치수(140호, 150호, 160호)정도가 트윈세대의 한국 평균 신체치수를 반영하고 있으며, C업체의 경우에서는 5개의 생산치수 중 3개의 치수(11호, 13호, 15호)가 트윈세대의 한국 평균 신체치수와 일치하였으나 업체의 가슴둘레와 키 조합에 있어서 치수 간 편차가 약간 크게 나타나 트윈세대와 맞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D업체의 경우에서는 6개의 생산치수 중 3개 치수(150호, 160호, 170호)가 트윈세대의 한국 평균 신체치수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업체의 가슴둘레와 키 치수에 있어서 치수 호칭사이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다소 가슴둘레와 키의 조합에 있어서 트윈세대와 맞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 E업체는 6개의 생산치수 중 3개 치수(11호, 13호, 15호)가 트윈세대의 한국 평균 신체치수와 일치하였다.

F업체의 경우는 6개의 생산치수 중 4개(11호, 13호, 15호, 17호) 치수가 본 연구대상의 신체치수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트윈세대의 연령에 따른 가슴둘레와 키의 신체치수와 F업체의 치수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업체의 경우 급격한 성장 변화를 갖는 한국 트윈세대의 신체 치수를 잘 반영하는 업체임을 알 수 있다.

트윈세대의 남학생 셔츠와 여학생 셔츠의 경우 신체치수와 주니어업체간 치수를 비교하면 업체에서의 남학생 신체치수의 반영 정도보다는 여학생의 신체치수 반영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니어업체의 남학생 바지의 치수가 트윈세대 신체치수를 어느정도 반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허리둘레와 키를 비교한 결과를 〈표 10〉에 나타내었다.

A업체의 경우 허리둘레는 55~68cm범위에 있으며 키는 130~160cm 범위로 4개 치수 중 2개 치수(150호, 160호)가 트윈세대의 신체치수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13세의 허리둘레의 경우 69.2cm보다 약간 작은 68cm까지를 치수에 반영하고 있으며, 14세와 15세의 경우는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B업체의 경우는 5개 생산 치수 중 2개의 치수(150호, 160호)가 트윈세대의 한국평균 신체치수를 반영하고 있으나 허리둘레의 경우 14세의 69.2cm와 15세의 72.6cm보다 작은 68cm까지를 반영하고 있어 14세, 15세의 경우 허리둘레가 약간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C업체의 경우는 5개의 치수 중 2개 치수(13호 15호)가 트윈세대의 한국 평균 신체치수와 일치하나 허리둘레의 경우 13~15세의 69.2~72.6cm보다 약간 작은 67cm까지를 반영하고 있어 13~15세는 C업체에서의 의복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D업체의 경우에서는 6개의 생산치수 중 3개 치수(150호, 160호, 170호)가 트윈세대의 한국 평균 신체치수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40호(10-12세)의 경우 상당히 작은 신체치수가 반영되고 있어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잘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E업체는 6개의 생산치수 중 3개 치수(11호, 15호, 17호)가 트윈세대의 한국 평균 신체치수에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

〈표 10〉 남학생의 바지 업체 표기치수와 신체치수*의 분포

단위 : cm

치수분류 / 연령	신체치수	업체 표기치수											
		A		B		C		D		E		F	
나이 (세)	가슴둘레 /키	호칭(세)	치수 (가슴둘레/키)	호칭(세)	치수 (가슴둘레/키)	호칭(세)	치수 (가슴둘레/키)	호칭(세)	치수 (가슴둘레/키)	호칭(세)	치수 (가슴둘레/키)	호칭(세)	치수 (가슴둘레/키)
11	66.9/144.9	130(8~9)	55/130	120(7~8)	52/(114~124)	7(8)	55/120	120(7~8)	53~55/120	7(7~8)	56/120	7(7~8)	56/122
12	67.4/150.7	140(10~11)	60/140	130(8~10)	56/(124~136)	9(10)	58/130	130(8~10)	55~58/130	9(9~10)	58/130	9(9~10)	61.3/133.3
13	69.2/158.2	150(12~13)	64/150	140(10~12)	60/(136~145)	11(12)	61/145	140(10~12)	58~62/135	11(11~12)	61/145	11(11~12)	66.9/144.9
14	71.1/164.7	160(14~16)	68/160	150(12~14)	64/(145~158)	13(13)	64/155	150(12~14)	62~66/150	13(13~14)	64/155	13(13~14)	69.2/158.2
15	72.6/169.2			160(14~16)	68/(158~168)	15(14)	67/165	160(14~16)	66~70/160	15(15~16)	68/165	15(15~16)	72.6/169.2
								170(17~18)	70~74/170	17(16~17)	72/170	17(16~17)	73.8/172.5

* 신체치수 : 2004년 Size Korea 자료

다. F업체의 경우는 6개의 생산치수 중 4개 치수(11호, 13호, 15호, 17호)가 본 연구대상의 신체치수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의 여학생 바지의 치수와 트윈세대의 신체치수와의 비교 결과를 〈표 11〉에 나타내었다. 바지의 경우 여학생(11~15세)의 허리둘레는 61.2~66.5cm의 범위에 있으며 키는 145.0~159.1cm의 범위에 있다.

A업체의 경우 허리둘레 55~68cm범위에 있으며 키는 130~160cm 범위로 생산하는 4개 치수 중 2개 치수(150호, 160호)가 트윈세대의 신체치수를 반영하고 있으나 8~16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넓은 연령대를 반영하고 있어 다소 허리둘레와 키의 조합이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양한 호칭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아 호칭간 치수 간격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B업체의 경우에서도 5개 생산 치수 중 3개의 치수(140호, 150호, 160호)정도가 트윈세대의 한국평균 신체치수를 반영하고 있다.

C업체의 경우 5개의 생산치수 중 3개 치수(11호, 13호, 15호)가 트윈세대의 한국 평균 신체치수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업체의 경우에서는 6개의 생산치수 중 2개 치수(150호, 160호)가 트윈세대의 한국 평균 신체치수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40호의 경우 남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40호(10-12세)의 경우 상당히 작은 신체치수가 반영되고 있어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잘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E업체도 6개의 생산치수 중 2개 치수(15호, 17호)가 트윈세대의 한국 평균 신체치수와 일치하고 F업체의 경우는 6개의 생산치수 중 4개 치수(11호, 13호, 15호, 17호)가 트윈세대의 한국 평균 신체치수를 반영하고 있다.

트윈세대의 바지의 경우, 비교적 여학생의 바지치수에 있어서 대부분의 업체가 비교적 대부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양한 호칭의 세분화 및 호칭간 치수 간격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새로운 소비세대로 부상하고 있는 트윈세대(초등5~6학년, 중1~3학년) 를 대상으로 소비자 측면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의복의 치수적합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

〈표 11〉 여학생의 바지 업체 표기치수와 신체치수*와의 비교

단위 : cm

치수분류 / 연령	신체치수	업체 표기치수											
		A		B		C		D		E		F	
나이 (세)	가슴둘레 /키	호칭(세)	치수 (가슴둘레/키)	호칭(세)	치수 (가슴둘레/키)	호칭(세)	치수 (가슴둘레/키)	호칭(세)	치수 (가슴둘레/키)	호칭(세)	치수 (가슴둘레/키)	호칭(세)	치수 (가슴둘레/키)
11	61.2/145.0	130(8~9)	55/130	120(7~8)	52/(114~124)	7(8)	55/120	120(7~8)	53~55/120	7(7~8)	56/120	7(7~8)	53.1/120.4
12	63.6/150.9	140(10~11)	60/140	130(8~10)	56/(124~136)	9(10)	58/130	130(8~10)	55~58/130	9(9~10)	58/130	9(9~10)	57.8/132
13	65.1/155.1	150(12~13)	64/150	140(10~12)	60/(136~145)	11(12)	61/145	140(10~12)	58~62/135	11(11~12)	61/145	11(11~12)	61.1/145
14	65.9/158.7	160(14~16)	68/160	150(12~14)	64/(145~158)	13(13)	64/155	150(12~14)	62~66/150	13(13~14)	64/155	13(13~14)	65/155
15	66.5/159.1			160(14~16	68/(158~168)	15(14)	67/165	160(14~16)	66~70/160	15(15~16)	68/165	15(15~16)	66.5/159
								170(17~18)	70~74/170	17(16~17)	72/170	17(16~17)	67.4/160

* 신체치수 : 2004년 Size Korea 자료

였다. 또한 급성장하는 트윈세대의 신체 치수를 업체에서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04년 Size Korea의 트윈세대 신체치수와 업체의 신체 표기치수를 비교한 업체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트윈세대의 의복적합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의복 구입 시 치수 선정에서는 남녀 모두 '착용 후 본인선택', '착용 후 어머니 생각대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생각이 치수 선정에 관여하는 비율을 볼 때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약간 크게 나타났다. 맞음새 결정에서는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친구들이 맞음새 결정에 관여하는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초등·중학생에 따른 의복 구입 시 치수 선정에서 초등학생은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경향이 중학생보다 높으며 중학생은 의복 치수 정보를 통해 치수 선정을 한다는 비율이 초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트윈세대 신체부위 기준별 의복 구성 항목 맞음새에서 하의의 경우 남학생은 엉덩이둘레기준으로 허리둘레를 선택할 경우 잘 맞으나 여학생은 허리둘레가 큰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초등 ·중학생에 따른 치수 크기 여유 선호도에서는 재킷의 경우 초등학생은 비교적 '넉넉한 것'에 가깝게 선호하지만 중학생은 '보통' 크기의 사이즈를 선호하여 초등 ·중학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티셔츠에서도 초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보통'의 크기를 선호하였으나 중학교 여학생은 비교적 '맞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여학생이 초등학교 여학생보다 비교적 맞는 것(fit)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초등 ·중학생에 따른 치수 크기 여유 선호도에서는 티셔츠에서는 남자 초등학생과 남자 중학생간의 약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둘째, 트윈세대의 신체치수와 주니어복업체의 의복 표기치수와의 일치정도에서는 남학생셔츠의 경우 D, E, F업체의 치수는 트윈세대의 한국 평균 신체치수를 잘 반영하였다. 그러나 가슴둘레와 키의 조합이 약간 잘 맞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 셔츠의 경우 F 업체에서 트윈세대의 한국 평균 신체치수를 가장 잘 반영하였고 트윈세대의 연령에 따른 가슴둘레와 키의 신체치수와 업체의 호칭 치수간격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의 신체치수 반영 정도보다는 여학생의 신체치수 반영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학생 바지의 경우 A, C, D업체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신체치수가 잘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여학생 바지의 경우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신체치수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아이템의 경우에는 여학생의 셔츠나, 바지가 비교적 트윈세대 신체치수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의복치수 적합성에 대한 설문 조사 시 하의의 경우 허리둘레 기준 바지 길이가 잘 맞는다고 나타난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주니어복업체의 경우 아동복과 함께 생산하는 체제이고, 아직도 트윈세대의 한국 평균 신체치수를 잘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빠른 실질적인 치수 반영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트윈세대를 위한 의복 업체들이 소비자 만족을 위하여 치수 규격의 통일화와 아울러 업체 패턴의 현실화, 업체치수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트윈세대의 의복 구입 시 치수 선정과 치수결정권 등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므로 트윈세대와 어머니가 함께 고려된 구매성향을 파악하고, 실제 트윈세대 신체 치수의 의복 패턴 적용 여부에 관한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은경, 최혜선, 강여선(2002). 트윈세대(Tween Generation) 아동복의 치수적합성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5)**, 691-702.

김은경, 최혜선, 이경미(2003). 중년여성 기성복 하의의 착용실태 및 맞음새에 관한 연구. -만 34에서 59세까지-. **대한가정학회지, 41(3)**, 1-15.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Size Korea)(2004). **제5차 한국인인체치수 조사사업보고서**(2차년도 최종보고서). 742.

이경남, 함옥상(2000). 학령기 아동의 기성복 치수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2)**, 138-145.

이정순, 윤정혜, 조윤주(1997). 남·녀 중학생의 교복치수 설정을 위한 신체발달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 5(3)**, 159-175.

임성민, 김미숙(200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과 어머니의 아동복 구매의사결정. **복식문화연구, 9(4)**, 562-573.

조선일보. 2006, 5, 8. 13-18세 WANT(Wild Active New Teen Ager) 세대가 뜬다.

조진숙(1998). 초등학교 어린이의 의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4,5,6학년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12**, 124-124.

최혜선, 이경미(1995). 중년여성 기성복의 치수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1)**, 187-202.

추희경(1994). 체형별 스커트 원형 연구 -평면재단과 입체재단의 비교를 통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05, 3,. '05년 국내 패션시장의 변화와 전망 세미나'

한국섬유신문. 1999, 4, 1.

한국표준과학연구원(1992). 산업제품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표준체위 조사보고서. 공업진흥청.

Sunsan, P. Ashdown. Marilyn Delong (1995). Perception testing of apparel ease variation. *Applied Ergonomics, 26(1),* 47-54.

Watkins, S. M. (1995). *Clothing -The Portable Environment.* lowa Sate University Press/ Ames.

(2006년 8월 23일 접수, 2006년 10월 12일 채택)